

대회사



전 동 용
(본회 회장)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복지농촌건설과 농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종탁농수산부차관님과 입법부의 농업 관계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오늘 전국양돈인 생산조절결의대회를 비롯한 연관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2, 3년전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돈업계는 그동안 관계 기관과 연관단체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타축종에 비하여 비교적 오랫동안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원만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나 미구에 우리 양돈업계에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큰 불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사육두수면에서 적정사육두수인 330만두를 10%나 초과한 360만두로 증가되었으며,

둘째, 모돈에 있어서도 적정규모인 330만두의 유지에 필요한 45만두를 16%이상 초과한 52만두로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료의 생산면에서도 330만두의 사육에 필요한 18만여톤을 20%나 초과한 21만 7천톤이 생산·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관련통계자료와 사육동향을 분석해보면 '87년도의 양돈불황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계속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경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양돈농가 스스로가 양돈불황을 크게 조성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와같은 무계획적인 생산활동으로 인한 가격파동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현대 고도산업사회에서 가격유지를 위한 생산 및 판매조정활동이 바로 모든 산업의 공통된 자구대책입니다.

이제 축산물의 식량화 시대의 문턱에서 전체 육류수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양돈업을 하나의 산

업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87년도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돼지파동 예방을 위해서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실천하여 공생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모든 양돈농가는 '86년 9월 수준의 사육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모든 사육두수에서 10%씩을 감축해 나아갑시다. 과거 수차에 걸친 양돈파동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우리 양돈인의 자율적 생산조절활동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돼지 파동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지역별로 모든 10%를 감축 지도 확인하는 활동에 생산자 조직을 전면 가동할 계획이며, 이와같은 업계의 자율적 활동을 외면하는 양돈농가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이미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양돈장은 그 사육규모를 허가 당시의 규모로 감축하거나, 돈육의 수출 및 계열화 생산으로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양돈의 경영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째, 우리의 자조적인 활동에 의한 돈육의 시장수요 유지와 개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양돈인은 매년 1두당 50원 또는 100원씩을 거출하여 소비자들에게 돈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과 소비홍보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시장의 조사작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이제 부터는 모든 양돈인들이 참여 이를 보다 확대해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무임편승자가 한 사람도 없이 생산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양돈산업은 안정적으로 육성 발전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본회는 이와같은 자율적 생산조절활동과 돈육소비 및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앞으로 6개월 간에 걸쳐 12만부의 양돈관계정보지와 5만부의 전문 월간지를 발행하여 전국의 양돈농가에게 우리의 활동방침과 성과를 알려드리는 한편, 수시로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를 통하여 관측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양돈농가들이 이와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공동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을 기하여 이 대회를 각 지방으로 확산하고, 각 지방별로 전망과 대책에 대한 강습회를 실시하여 양돈불황 도래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본인은 이 뜻깊은 전국 양돈인 생산조절결의대회에 즈음하여 우리 양돈인들이 한국 축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와같은 의지와 열망을 구심점으로 하여 미래의 선진양돈을 향해 다같이 힘차게 전진합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양돈업계를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내외귀빈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여러분들에게 전국 25만 양돈인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양돈인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번영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대회기념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